"넓은 곳 보며 안목 키우렴" 강진군 중2 전원 해외탐방

전남 첫…1인당 경비 70% 지원 9개교 247명 봄철 中 상하이 방문

강진군 전체 9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해외 역 사문화탐방에 나선다.

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특정 학년 전체 학생이 모두 해외 수학여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군 단위의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교육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미래 인재육 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예산지원은 전국 다른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최초로 지 역 9개 중학교 2학년 학생 247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8 글로벌 인재 해외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남도와 도교육청 차원 의 예산 지원이 아닌 군단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군은 지난 4일 9개 중학교 교장과 강진교육지원 청·학부모·학생·군의원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해 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5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세부행사지원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비로 군비 1억 8000만원을 투입, 학생 1명당 소요경비 70%(학생 지원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 려운 학생에 한해선 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우선 군은 오는 5월~6월께 3박4일 일정으로 5회 에 걸쳐 중국 상하이로 떠나는 해외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견학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와 고구려 역사 유적지 등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이다.

군은 농어촌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해외문 화 체험과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글로벌 인재 해외 역사 문화탐방은 수년 전부터 도입하려고 준비해왔던 프 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 이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군의 역 사·문화·지역, 세계를 좀 더 큰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또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나 다름 없 다. 앞으로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억원의 예 산을 투입,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 로 해외단기어학연수를 진행 중이다.

2년 전부터는 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워싱턴 주 킹카운티에 있는 스노퀄미시(Snoqualmie·市) 로 해외단기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다. 군의 이 같은 연수지 변경은 학생들이 선진지에서 직접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광주일보 2018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이 23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다. 시상식 후 김명군 금호주택 대표, 김정현 시 당선자, 신수나 동화 당선자, 송은유 소설당선자, 김일환 광주일보 편집국장, 문정영 계간 시산맥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학 신인 발굴'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단편소설·시·동화 3개 부문

201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23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 5층 연회장에 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가족, 친지, 역대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계간 '시산맥'(대표 문 정영) 회원 그리고 내빈 인사로 금호주택 김명군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8년 광주일보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송은유(49)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김정현(37) 씨와 동 화 부문 당선자 신수나(50) 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 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김일환 편집국장이 대 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실시해온 전통과 권위 의 등용문"이라며 "그동안 광주일보는 신문지상 과 자매지 '예향'에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을 위해 신작 발간과 문단활동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발굴된 신인들을 위해 전광판 홍 보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 일보와 자매지 '예향'은 신춘문예 지원뿐 아니라 호남의 문학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광주일보 신춘문예에는 모두 2068편 의 작품이 투고됐다. 시 1750편, 소설 183편, 동화 135편으로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응모 현황을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늘린다

교육청, 구입비 96억원 확정…전년보다 15억 7천만원 증가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학교급식에 사용할 친환경 고춧가루 가격을 30% 인상하는 등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인상했다.

시교육청이 23일 '제19차 친환경 우수식재료 선정 위원회 회의'를 한 결과, 올해 광주산 친환경 무농약 쌀 공급가격은 20kg당 5만2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94% 인상된 가격이다. 고춧가 루 1kg당 가격은 30% 오른 4만1000원, 김치는 물가 지수 등을 반영해 3% 인상했다.

이번 가격산정에는 친환경 식재료 확대정책을 비 롯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와 공급협력업체 희망가격, 정부양곡 판매가 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품목별 공급업체도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친환경 우수식재료

시교육청은 또 올해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

공동구매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간 성장기 학생들 의 심신 발달은 물론 지역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총 금액은 93억원으 로, 이는 지난해보다 15억7000만원 증가한 금액이

식재료비는 시교육청(65%)·시청과 구청(35%) 씩 각각 부담하고 있다.

시교육청 김홍식 체육복지건강과장은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전량을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함에 따라 친환경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친 환경 우수식재료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학교 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율이 늘어나 학교급식 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샬롬산업(주), (주)벌교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남부대 교원 임용고시 12명 합격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에서 2018년 전국 시·도 교육청 교원 임용고시에서 합격자 12명을 배출했다. 전공별 합격자 수는 유아특수교사 6명, 초등특수 교사 5명, 유치원교사 1명이다.

특히 유아특수교육과는 광주지역 선발인원 5명

중 3명이 합격하고, 전남지역 선발인원 6명에서 3명 의 합격자를 냈다. 남희주 학생은 광주지역 수석으

로 합격했다. 남부대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임용시험 준비를 지원하고 있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개분말(개당) 7,000원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원

(주)아침가리 대표 김영수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구 매 문 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벌교꼬막 061)745-9907

샬롬산업(주) 1577-8885



홈페이지: www.jnbada.or.kr